

일주 문



노산훈연소 장병에 수계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10월 4일 노산훈연소 수계법회에서 장병 2400명에게 수계하고 "불자라는 긍지로 군복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불광법회 창립34주년 기념법회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불광법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10월 5·12일 각석 스님(화엄사 회주)과 통광 스님(칠광사 회주) 초청 법회를 연다.(02)413-6060



제5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개최
월정사 주지 정병 스님은 10월 10일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5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연다.



미항사 20년 중창불사 회향 과불재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10월 18일 20여년의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미항사 중창불사 회향기념 과불재'와 작은 음악회'를 봉행한다.(06)1533-3521



청주검찰청 영동지청 양형지문위원회
옥천사암연합회장 해철 스님은 9월 26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김영중) 양형지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진흥원, 군포교 지원금 1억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10월 8일 오전 11시 진흥원 5층에서 군중특별교구에서 군포교 지원금 1억원을 전달한다.



불교여성개발원 '구슬정원전'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10월 12일 ~ 11월 2일 길상사에서 '문화공간 지대방'이 주최하는 '구슬정원전'을 개최한다.(02)883-7354



제6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개최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10월 13일 명랑대접축제의 일환으로 진도대교 녹진광장 야외무대에서 제6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02)2278-5452



내장사 제4회 녹향제 개최
샘골 다래원 정기진 이사장은 10월 11일 오전 11시 정을 내장사에서 제4회 녹향제를 개최한다.



은암김성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은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에 이훈(李勳) 전 불교TV 방송본부장이 선임됐다.

“불교 전통 ‘보시’ 체계적 기부시스템으로”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세영 스님

“불교의 보시문화를 체계적인 기부문화로 정착시켜 정토구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신복사 주지·사진)은 “불교에는 보시라는 기부문화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기부시스템이 없었다. 보시문화가 기부문화로 자리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동행” 창립준비위원장으로 많은 일을 한 스님은 “당초 설립에 1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5일 행정안전부에 3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허가 신청을 냈지만, 정관과 자본금, 복지부와 통일부 등 관련부처 협의로 계속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내년부터 공익법인 기본재산 요건이 5억에서 15억원

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창의하게 돼 기쁘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기본 재산 5억 원으로 9월 30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창립식 당일 전달된 기부액수만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불교공익법인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크다. ‘아름다운 동행’은 조계종에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 세영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복지시설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아름다운 동행’은 복지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재단구호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민족공동체 지원사업 ▲승가구기 등 생애사회운동(에코운동)

▲국제 개발 및 교육·의료 지원사업의 5가지 분야에 걸쳐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루 360원 이체, 100명이 월 108만원 기부하는 ‘365캠페인’, 직접 저금통을 만들어 저축과 기부의 기쁨을 나누는 ‘네모의꿈’,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재능도 개발하는 ‘나눔씨앗뿌리기’ 등 다양한 기부운동도 펼친다. 이를 통해 5개년 기금 적립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기금 조성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본재산을 포함한 모금액은 8억 여원이다.
세영 스님은 “기부는 재력가·사업가뿐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계 언론을 통한 홍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증생은 모두 한 가족이다. 사회가 발달할 수록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빈부격차 문제 등에 기부를 통한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며 기부문화 확산에 나선 ‘아름다운 동행’에 불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올바른 정보 제공할 터”

김재원 前 의원 BBS 아침저널 진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국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고, 소수라도 정직하고 바른 주장이면 가감 없이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김재원 前 의원(사진)이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시사프로그램 ‘김재원의 아침저널’ 진행을 맡았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캠프와 후보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던 김 前 의원은 경선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박근혜의 영원한 서포터즈’로 남겠다는 글을 남기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었다. 前 의원은 공정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열성도 보였다.
김재원 前 의원은 “그동안 중국 북경대학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국제질서의 흐름을 주시해왔다”며, “그간의 경험과 기량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前 의원은 “산업화와 지식정보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적 열등자가 양산돼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재원 前 의원은 종합학교인 대구 심인고 재학시절 <반야심경>에 심취했던 불자다.
‘김재원의 아침저널’은 BBS불교방송(IFM 101.9MHz)에서 매주 월-금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만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법의 짓는 마음으로 염색”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김경열 염색장

“자연에서 찾아낸 염료로 심혈을 기울여 물들이다 보니 은은하게 우러나는 그윽한 색감이 자연스럽게 매료됐지요. 불자로서 성스러운 법의를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천연염색이 오늘의 영광이 됐습니다.”
제33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자연전통 홍화염색’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경열 염색장(사진)은 700~800명 넘는 발에 홍화를 직접 재배하며 전통 염색을 고수해온 장인이다.
그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인 아름다운 문양을 바탕으로 염색을 통해 재구성, 쪽염이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이래 최초로 홍염 염색장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인의 오랜 연륜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염색철학이 불교와 만나 맺은 소중한 결실이다.
박 물관에 소장된 가사(袈裟)를 복원하는데 남다른 애정을 보여 온 김경열 염색장은 “가사뿐만 아니라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장삼과 복장 복원작업에도 입괄계획”임을 밝혔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한국 최대의 전통공예 전시사로 전통공예기술을 보존 전승하고 육성하는 공모전이다.
서울 전시는 10월 12일까지 덕수궁 석조전, 지방 전시는 10월 16일~11월 2일까지 청주원단문화산업단지에서 진행된다.



가연숙 기자

대구사원주지연회 신도회 수계법회



대구사원주지연회(회장 법혜)는 9월 28일 불교대구회관 만불보전에서 불교기본교리 교육을 이수한 신도들과 공무원 불자 106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은해사 제3회 태권도 아리랑 예술제



영천 은해사는 9월 28일 제3회 태권도 아리랑 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권도 아리랑 사범단의 창작무술과 대한무사회의 무술시범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전주·전북 포교사단 철야정진법회



전주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은 9월 28일 고향 선운사 도솔암에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전북지역단 포교사 40여명이 동참해 좌선, 신묘장구대다라니, 10배 참회 정진 등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자천도재 봉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는 9월 28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4회 신신 및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인간문화재 법진 스님의 인례로 이날 천도재는 시련, 대령, 법문, 영가천도의 순으로 봉행됐다. 노덕현 기자

종교인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캠페인



육천군은 9월 28일~29일 육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용택 육천군수와 육천군 종교단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한국의 민중의술계에서 신화 같은 기적을 일으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스님은 누구인가?

칠대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 이겨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8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 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이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에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어떻게 하나 1.2.3권 저자 전 울산 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민중의술신문 2006년 12월 7일 10면과 11면, 2007년 1월 31일과 8면과 9면에 민중의술 명의열전 “김영생과 천의선도” 천의선도는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되었던 천의선도 창도자 김영생 대한신불교천우종 포교원장 삼봉(三奉)승이 대덕고승님 앞에 감히 권유의 말씀 올립니다.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고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며 부처님 뜻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천의선도는 전수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를 촉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며 시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년 두통 환자가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 나갑니다. 당신의 머리 백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슴에 시들던 초목이 이슬비 맞으면 싱싱해 지듯이 모든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천의선도 수련을 몇 시간 계속하면 당신의 손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자석의 당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이 오르라 들면서 이 신비속에 접어들지 얼

마간이 지나면 감기를 들었을 때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들고 나면 수련자는 무아상태에 들어갑니다. 앞마마 안쪽에서 물린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삼매경에 들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30여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차는데 삼키면 또 차고 삼키면 또 차는데 천상영계에선 이 침을 생명의 감로수라 하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되지 얼마간이 지나면 회열의 환희속에 접어들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지 나의 의무와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간뇌에서 다이나믹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물린의 2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나믹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모든 병의 원소가 소멸되고 병든세포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영계의 메시지만도 천의선도를 17년간 전수시키다 보니 낳으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린 20대 여성이 수련 2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뇌종양환자 간암환자 식도암환자 폐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10여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중풍으로 5년간 누워 계시던 한의학 박사님이 수련 5개월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30년 두통환자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견비통 위하수 이명증 생리통 요실금 전간(간질병) 전립선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수련시키면서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2.3차 주입시켜 주었더니 신화같은 기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 체험을 해봤는데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고승님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이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시

킬 수가 없어 내 의식이 생활할 때 천하제일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전 인류에 봉사하며 살자고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치료법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늘의 의술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염려도 없이 스님들에게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승을 시험해 보시고 믿어지거든 고정관념 쫓아내고 종파를 초월해서 노승을 찾아 주시면 천의선도 전수식부터 조상천도식 기적의치료법 선단제조법까지 3박4일이면 천하제일의 명의로 환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소양증과 탈모도 방지되는 비누도 개발되어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수련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전수도장
■ 연락처 : 010-4933-4528
· 1차 : 11월 13일 오후 1시 개강 - 16일 12시 수료식
· 2차 : 한국 땅에서 마지막 강의 - 11월 20일 1시 개강 11월 23일 12시 수료식
· 전수비 + 환신비 + 교재비 : 150만원
· 내선침 값 500개 : 50만원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00년 사상의학 팔상체질 분류비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리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가 · 세계침구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 협회 회원 · 대한신불교 천우종 포교원장 삼봉 김영생 법하